



송하진 전북도지는 1일 “어려운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들의 삶도 윤택해지는 새로운 희망을 여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전주매일과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북경제 체질 강화와 신산업 생태계 조성, 도민 안전과 복지를 확대하고 전북 대도약을 이루기 위한 대장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19년 송 지사의 전북도정을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 비전 현실화 할 것

## ▲새해 덕담 한마디 한다던?

먼저 올 한해에는 우리 전북도민에게 더 큰 희망과 행복한 1년이 되기를 온 마음으로 기원하겠다.

또 300만 출향 도민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꼭 원하는 일들이 잘 풀리길 간절히 바란다.

올해는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다.

어려운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들의 삶도 윤택해지는 새로운 희망을 여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특히 전북경제 체질 강화와 신산업 생태계 조성, 도민 안전과 복지를 확대하고 전북 대도약을 이루기 위한 대장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올 한해에는 지역경제 혁신에 모든 전력을 쏟을 것이다.

도민 모두가 오늘에 대한 민족과 내일을 향한 기대를 품으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세세한 곳까지 들여다보겠다.

## ▲올해 도정 운영 방향을 가능할 수 있는 사자성어를 ‘절차탁마’라 정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

2019년 도정 운영을 위한 사자성어인 ‘절차탁마(切差琢磨)’는 원석을 자르고, 풀로 슬고, 끌로 쪼고, 갈아 빛을 내는데 오랜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며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자는 의미다.

2019년은 도 핵심정책 실천과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다.

그간 쌓아온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 시 잘하는 것은 더욱 갖고 닦아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정책 성공을 이루겠다는 표현이다.

도민과 함께 전북 대도약을 위한 정책구상과 실천방안 모색 등 주도면밀한 정책추진으로 자존의 전북시대를 열어가고 싶다.

## ▲2018년은 언 초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다. 다사다난 했던 도정을 뒤돌아본다면?

지난해는 위기와 기회 상존 속에 우리 전북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발전의 계기를 모색해 온 한 해였다고 자평한다. 국내 경기 침체와 지역적으로는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민생이 위축됐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았다.

2018년 한 해 전북은 가시밭에 핀 백합꽃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기회를 발견하고 긍정적인 변화도 곳곳에서 나타났다.

새만금 내부개발의 경우는 속도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정부 비전도 선포됐고 새만금 투자여건을 강화하는 법률도 개정됐다.

서남대 폐교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관련해서도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도 확정됐다.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체질 개선에 나서 상용차산업의 혁신성장과 10년간 1조원이 투입될 수소상용차와 같은 미래형 산업생태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예산과 도 예산이 동시에 7조원 시대에 진입하게 된 것도 허약한 경제체질을 튼튼하게 바꿀 신산업에 대한 투자 예산이 대거 포함 된 것이다.

## ▲민선7기에 이어 민선7기 전북도정을 이끌고 있다. 민선7기 전북발전 밑그림을 어떻게 그려 나가실 계획인가?

민선 7기 전북도정은 지역산업 체질 개선과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 새만금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주요 SOC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현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에 대응해 전북 균형발전 정책인 새만금-혁신도시-동부권으로 연결하는 동서상생축, 혁신도시와 연계하는 내륙혁신성장축, 군산-새만금-부안-고창으로 연계하는 해양레저축 구축 등으로 지역내 불균형도 해소하겠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산하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 비전을 현실화해 나갈 것’이다.

## ▲전북 대도약 실행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의미를 말한다면?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국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진전과 함께 미래 경제를 선도할 첨단 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과 경쟁이 기업차원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숨 막힐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 전북이 이러한 상황에서 자생력을 확보하고 정책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들의 내실있는 정책 진화를 이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민이 체감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북경제 체질개선은 물론 전북 대도약 원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올해 도정의 역점시책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수요와 환경에 맞추어 8개 분야로 나누어 10대 핵심프로젝트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역산업 체질 개선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  
주요 SOC구축에 ‘역점’  
정부 균형발전정책 대응  
동서상생·내륙혁신성장  
해양레저축 구축 등  
지역내 불균형 해소  
좋은 일자리 창출 통해  
지역경제 체질 개선

## ▲국가예산 확보액이 7조원을 넘었다. 국가 예산과 함께 도 자체 예산도 7조원이 넘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2019년도 국가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절망의 산업화 시대를 이겨내고, 응비하는 천년전북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의 씨앗을 확실히 뿌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먼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고, 전북의 허약한 경제체질을 대거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자율주행 상용차 생태계와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삼각농정과 농생명 산업, 여행체험산업 등과 관련된 신규 사업 예산 확보로 전북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새만금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 우선 국가적 차원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외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만들어질 것이다.

정부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으로 삼으면서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새만금개발 27년 역사에서 대통령이 원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발표한 건 처음이어서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정책을 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뿐 아니라 이 체계 내에서 기업들과 자본, 정부 지원책이 실행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입장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 재생에너지 육성사업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볼 수 있다.

## ▲새만금 SOC 진척 상황은?

새만금 관련 2019년도 예산은 총 1조1,186억 원이다.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지 27년 만에 1조 원을 돌파한 것이다.

이로 인해 새만금 내부개발과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됐다.

하지만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마련돼야 새만금사업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다.

현재 새만금 내부를 동서남북으로 잇는 도로와 전주와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촘촘히 놓이고 있으며, 항만도 공사 중이다.

새만금 중심도로인 동서도로는 작년 말 현재 공종률이 70%에 달하고 있고 남북도로 역시 부안방면 2단계 공사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도 6개 공구에서도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대중국 산업 전진기지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새만금항 인입철도도 국토교통부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3월말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관련 예산 1조원 돌파  
도로·항만 등 공사 진행  
국제공항은 새만금 사업 ‘핵심’  
캠버리 성공 개최 등 위해  
반드시 필요... 건설 서둘러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등 구축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군산형 일자리’ 조성 노력

## ▲가장 핫 이슈이자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 상황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서해안권 중심에 위치한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써 동서 동반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도 입장에서도 새만금 사업과 세계캠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여서 공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사실상 새만금 사업 중에서도 핵심 사업이다. 따라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정부 국가균형발전기반구축사업에 넣어 예타 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고 있다.

예타면제로 새만금 공항 건설의 속도를 높일

가속엔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침체된 전북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지요?

지역산업 체질개선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지역산업 체질개선과 미래 경쟁력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구조를 갖춰야 한다.

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사업은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역 군산공장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데 세부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새해 도정 조직에도 변화가 있다. 조직개편 방향과 의미를 간단히 말한다면?

도정 조직개편은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융복합·신성장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도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됐다.

전북 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경제산업국을 일자리경제국과 혁신성장산업국으로 분리했다.

하부조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국을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과도 신설 했다.

또 대형 현안사업 발굴을 통한 전북 대도약을 위해 대도약기획단을 신설하고, 기획단 내에 혁신행정조직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혁신팀도 만들었다.

2023 세계캠버리 대회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한 캠버리홍보팀과 가족분노·축산악취 등 해결을 위한 축산환경개선팀이 신설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운영을 위한 스마트팜팀과 상용자동차 자율주행,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자동차산업팀도 문을 열었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올 한 해 도정이 목표를 세운 프로젝트들이 성과를 내고 도민들의 삶이 빛날 수 있도록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다.

기해년 한 해가 우리 전북인의 자존의식을 높일 수 있는 대도약의 첫 해가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반드시 전북의 대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올해엔 도민 여러분의 원하는 일들이 술술 잘 풀리길 간절히 기원하겠다. /고민형 기자